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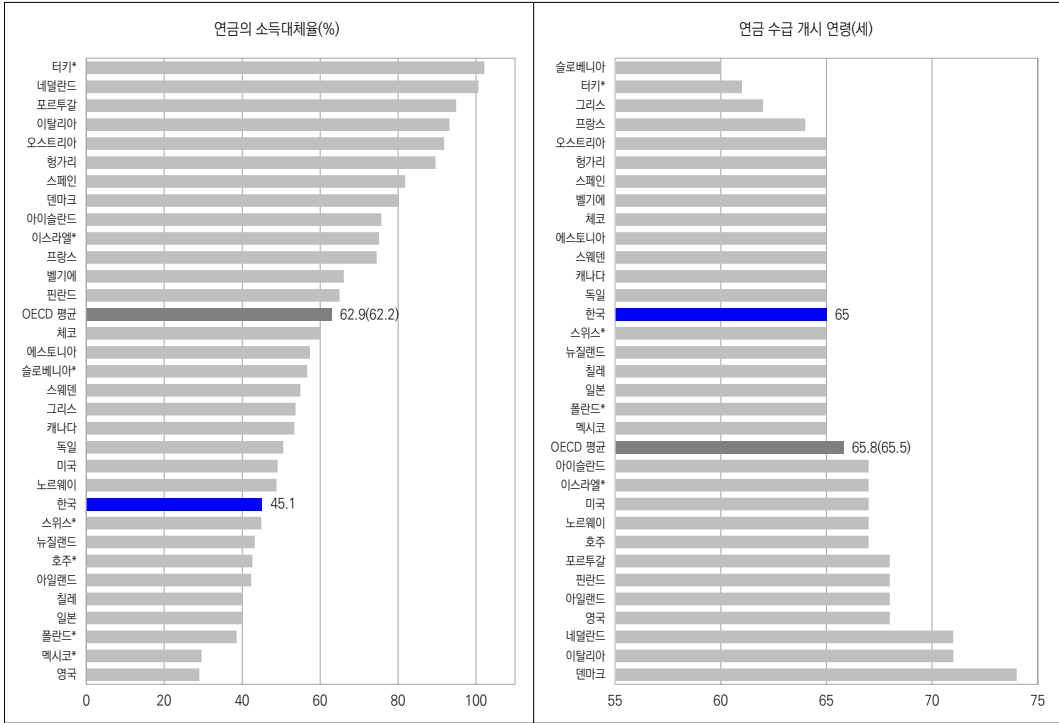
## 연금 소득대체율과 노령의존율 국제비교

- 한국(2019년)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의 상한선은 만 60세 미만이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연금수급 연령은 2년의 차이가 남.
  -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에 다다른 59~60세 미만 연령층의 국민연금 가입률<sup>1)</sup>은 2015년 60%에 도달한 이후 2018년 현재 65.4%임.
- OECD 회원국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Net Pension Replacement rate, 2016년, 이하 남자 기준)<sup>2)</sup>은 은퇴전 평균소득의 62.9%이며, 여자는 이보다 낮은 62.2%로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평균 65.8세(여자 65.5세)이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65세인 가운데 덴마크(74세), 이탈리아(71세), 네덜란드(71세) 등은 70세 이상임.
  - 한국의 경우, 평균 소득자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45.1%이었으며,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일본, 영국, 멕시코 등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군으로 나타남. 한편 덴마크, 스페인, 헝가리, 네덜란드, 터키 등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 특히 한국의 저소득자(=은퇴전 소득이 평균 소득자의 0.5배 수준에 해당)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63.8%, 고소득자의 경우 33.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각각 9.4%p, 25.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1) 국민연금 가입률은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한 수치이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한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이 포함됨.

2) 본고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의 은퇴전 평균소득(소득세와 사회보장금액을 고려한 세후 기준) 대비 연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연금은 강제적 공적·강제적 사적(Mandatory public+Mandatory private) 연금을 포함함. 여기에서 평균 소득자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은퇴연령까지 근무한 자 중 은퇴전 소득이 평균 수준인 자(full-career average wage earner)를 의미하며, 자발적인 개인연금을 포함하면 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 평균 69%로 나타남. 호주,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 터키,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남녀 동일한 수치임.

[그림 1] OECD 회원국의 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금수급 개시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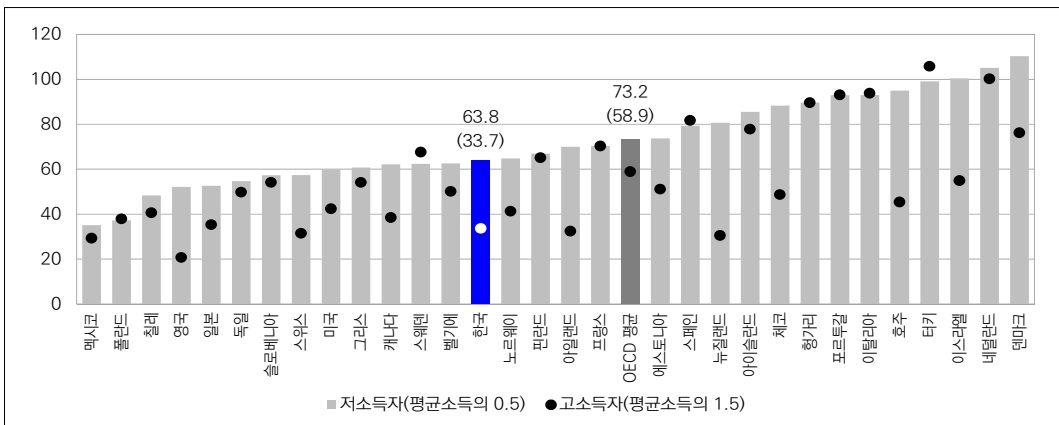
주 : OECD에서 발표하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은퇴연령까지 근무한 자 중 은퇴전 소득(세후)이 평균 수준인 자의 소득대비 연금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연금은 강제적 공적·강제적 사적 연금만을 고려함.

\*는 남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이며, ( ) 안은 여자의 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임.

자료 : OECD, Pension models, <http://www.oecd.org/>

[그림 2] OECD 회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 소득대체율(저소득자·고소득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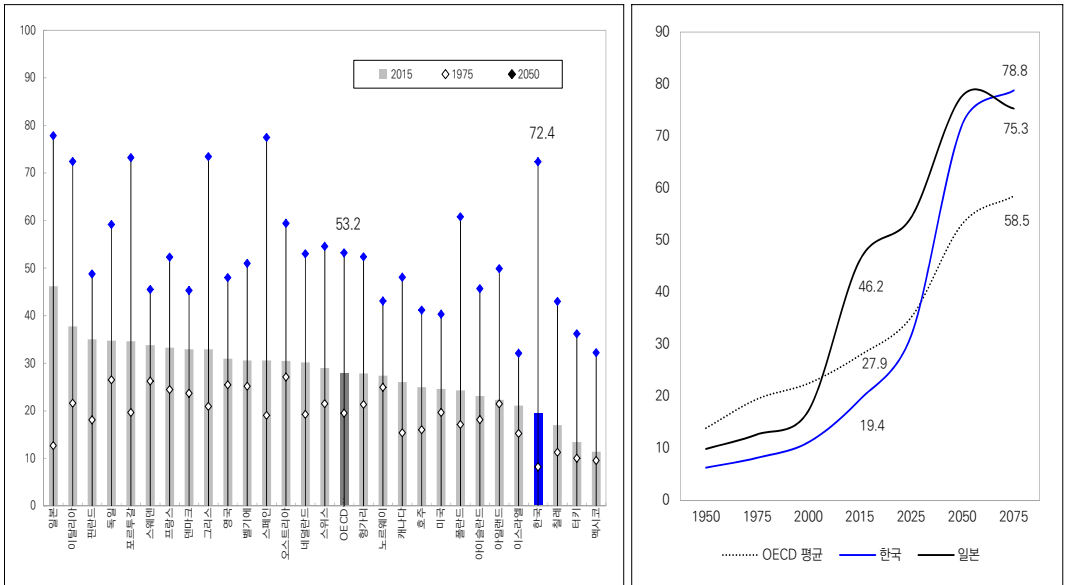


주 : 남자 기준임. ( ) 안은 고소득자의 연금 소득대체율임.

자료 : OECD, Pension models, <http://www.oecd.org/>

- 한편 OECD 회원국의 노령의존율(Old-age dependency ratio, 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 × 100, 2015년 기준)은 향후 35년 내에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됨.
  -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령의존율은 27.9%로, 2050년에는 53.2%로 2배 증가할 것이며, 2075년에는 5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노령의존율은 27.9%(2015년) → 31.7%(2015년) → 72.4%(2050년)로 급격히 증가하여 2070년에는 7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의 노동시장 출구연령(Labor Market Exit age, 2016년 기준)은 남자는 72세, 여자는 72.2세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남자는 65.1세, 여자는 63.6세)보다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Pensions at a Glance, OECD).

[그림 3] OECD 회원국의 노령의존율(1975, 2015, 2050) [그림 4] 한국의 노령의존율 속도



주 : 노령의존율=(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 × 100.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http://www.oecd.org/>

UN 세계인구 전망(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년 수정).

- 최근 한국은 예상보다 빠른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2019년 9월)』을 발표하여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 하되, 기업이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방식을 선택하도록 2022년부터 일본식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3)에 진입한 일본은 1994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였

고, 2004년에는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화 연령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빠른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의 위기가 발생하자 정년과 연금지급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년연장을 실시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3)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를 의미함.